***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4. 11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 전경**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필리핀 풍력발전단지에 케이블 공급…동남아 친환경 전력망 공략 가속화**  **■ LS-VINA, 필리핀 ‘칼라야안2’ 프로젝트에 MV 전력 케이블 공급**  **■ 필리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50% 확대…시장 성장 기대**  **■ 베트남·인니·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력망 사업 지속 확대 예정**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는 자회사인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필리핀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LS-VINA는 필리핀 정부가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칼라야안2(Kalayaan 2)’ 풍력발전단지에 전력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필리핀 라구나주 칼라야안 및 파에타 지역에 약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약 8만5천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LS-VINA는 풍력발전소의 전력망 구축을 위한 MV(중저압) 케이블을 공급해 안정적인 전력 전달을 지원하게 된다. LS에코에너지는 이번 수주를 통해 필리핀 내 친환경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동남아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S에코에너지는 필리핀 IDC 전력망 공급에 이어 이번 풍력 프로젝트를 계기로 현지 전력망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친환경 전력망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